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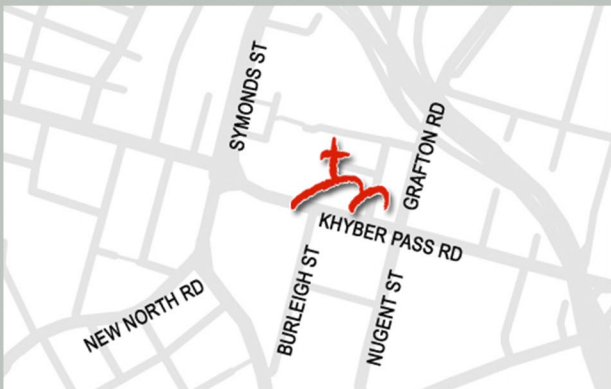
우리 갈보리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와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 오늘 2부 예배 후 7월 정기 당회가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4시 5분)
2. 정독으로 성경을 묵상하는 세 번째 주간입니다. 다독 아닌 정독으로 말씀의 풍성함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범위는 창세기 43-출애굽기 13장까지입니다.
3. 1.2여 선교회 주관 거리 찬양 전도가 오는 8월 3일 (토) 오후 3시에 아오테아 광장에서 있습니다. (수요일 오후 7시에 찬양 연습, 차량봉사 필요)
4. 이번 주 수요일 예배는 차드 공동체 주관입니다.
5. 다음 주는 각 선교회 월례회 주일입니다. 임원들은 잘 준비하기 바랍니다.
6. 창립 주일 기념 볼펜과 성도들의 글 모음집 '갈보리 공동체의 민 낮'을 받지 못한 성도들은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7. 추억의 사진전을 알아맞히기 응모에 4명이 정답을 맞혔습니다. (시상/무릎담요)
8. 창립 주일 준비와 강사 목사님 식사 대접과 선물, 어제 밀알 장애우를 섬겨주신 성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8월 사역일지 및 예배안내]

- 9일 (금) 금요일저녁기도회
- 25일 (주일) 권사 기도회
- 28일 (수) 선교회 주관 예배 (4남녀)

INFO



[예배시간안내]

주일 1부예배	주일 11:20 am
주일 2부예배	주일 1:00 pm
청년예배	주일 3:15 pm
수요일예배	수 7:30 pm
새벽기도	금 5:30 am
유아부	주일 1:00 pm
청소년부	주일 1:00 pm

[섬기는사람들]

담임목사	이태한
부목사	이성철
부목사	이성훈

www.calvary.org.nz
www.youtube.com/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70 Khyber Pass Rd, Grafton, Auckland
(Ph) 09-369-5077 (Mb) 021-968-388
LTH-07@calvary.org.nz



해/외/한/인/장/로/교/회
갈보리교회
교회창립 1999 / 07 / 18

2019/07/28
21권 30호

배우고
확신한
앞에
거하라

디모데후서 3:14

주일예배	1부 오전 11시 20분	2부 오후 1시	인도: 이태한 목사
찬양	시편 84:1-4		청년부
예배로부름	28장		인도자
찬송	사도신경		다같이
신앙고백	252장		다같이
찬송	여호수아 3:7-17		다같이
대표기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박병민 장로
성경봉독	나의 믿음을 약할때		인도자
찬양대찬양	요단을 건너는 기적		나무십자가 찬양단
설교	337장		이태한 목사
찬송	445장		다같이
헌금기도	이태한 목사		인도자
교회소식	이태한 목사		인도자
응답송	이태한 목사		다같이
축도	이태한 목사		이태한 목사

수요일예배	오후 7시 30분	청년예배	오후 3시 15분
기도	김자경 권사	금주기도	모지선 자매
성경봉독	마가복음 3:24-26	다음주일	채령 자매
설교	[분쟁하면 망한다]	- 매주 금요일 오후 6시에 청년부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이태한 목사		
찬송	488장		
주기도	다같이		

[8월 기도 순서]

- 8월 4일 (주일) / 손조훈 집사
- 8월 7일 (수) / 현석호 장로
- 8월 11일 (주일) / 정관영 장로
- 8월 14일 (수) / 문일숙 집사

[8월 예배 봉사자]

- 예배 안내 / 이병대, 이진아
- 새신자 안내 / 차영철, 심경순
- 주차 안내 / 김교섭, 민광호
- 주방 봉사 / 박제란, 김명옥, 김민경, 박영선 A

이번 주는 루마니아 김유정 선교사 소식입니다.

기도 동역자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2019년 여름성경 캠프 소식

올해는 7월 15일 한국에서 열리는 한국 국제 기아대책 봉사단 선교대회 참석 관계로 여름 성경 캠프를 일찍 하였습니다. 1차 캠프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2차 캠프는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합숙하며 아동, 청소년 구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은혜 네 그룹을 나누어 진행하고 말씀, 예배, 성경 암송, 찬양과 여러 재미있는 게임도 하면서 아이들과 즐겁게 보냈습니다. 캠프 기간 아동들과 피데쉬티 동물원도 다녀오고 무엇보다 사건 사고 없이 캠프를 마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뿌려진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아동의 마음 밭에 떨어져 열매가 맺히고 믿음이 자라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이번 한국 방문에 에스테라와 함께 가는데 건강하게 MK(선교사 자녀) 훈련에 잘 적응하기 바랍니다.

마을교회 소식

오그라더 마을 교회는 코스민, 에밀리아가 다시 교회를 나오고 있고, 에스테라가 학교를 다니면서 주일 찬양, 성경암송, 그림 성경 등 준비하여 어린이 사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에스테라는 올 9월에 10학년(고1)이 되고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닙니다. 두미레쉬티 교회는 최근에 흐로리나, 안드레아 등 20대 아기 엄마들이 몇 명 새로 교회를 나오고, 로디카, 니콜레타 자매들이 새 신자 집을 방문하여 기도와 말씀 양육을 돕고 있습니다. 두미레쉬티교회 네오도 학교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과 대표를 하고 있는데 어릴 적 마을에 인터넷이 없어 컴퓨터를 가르치지 못한 관계로 미디어 사용이 서툴다 보니 네오가 대학 생활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노트북을 구입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학비, 생활비 등을 보태기 위하여 여름방학기간 동안 디미슈아라에서 건축 노동일을 하면서 주말에 집으로 와서 교회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사역자 크리스티 형제도 생활비 충당을 위해 7월 중 2개월간 독일로 건축 노동일을 하러 떠납니다, 이때 교회 사역은 페트레, 네오, 로디카 자매가 합니다.

모든 성도들 주안에서 강건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김유정 선교사

기도 제목

1. 여름성경캠프에 왔던 아동들의 믿음이 자라 각 마을 교회의 일꾼이 되도록.
2. 집시 사역자와 동역형제들의 성령충만과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홍수 때 피할 Hiding Place! (창세기 6-9장)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 하리라" (창8:22). 홍수 후에 하신 말씀처럼 우린 그 약속의 말씀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자연계에 살고 있다. 얼마나 경이로운 생명의 순환인지... 생각할수록 경이롭다. 홍수 전에는 어찌했을까? 세상은 그때에도 죄가 관영하였고 사람들의 생각은 부패하였다고 하셨다. 그리고 시절은 반복되고 있었을 사람들은 커다란 방주를 짓는 노아를 비난하고 조롱했을 것이고 아마도 미친 사람 취급도 했을 것 같다. 그러던 중에 망했다. 심판은 그렇게 갑작스레 왔었다.

지금은 어떠할까? 도무지 종말이 올 것 같지가 않다. 세상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기상 이변은 있지만 익숙해져 가고 있다. 스마트폰 속에 살다 보면 세상이 온통 내 손안에 있는 듯 우쭐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이러다가 어느 순간 홀연히 종말을 맞게 되는 게 우리의 현실임에도 우린 그것이 우리 세대에 일어날 거라 믿고 있지는 않아 보인다.

노아의 홍수 때처럼 바닷물이 솟아나고 그것들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시46:3). 그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큰 깊음의 샘이 터지고 온 땅이 급류로 떠내려갈 때, 피난처였던 방주 속에서 노아와 가족들이 안전했던 것처럼, 장차 올 심판 앞에서 우리의 Hiding place는 어디일까?

사람이 만들었던 방주가 아닌, 지금 우리에게 이미 생명의 보혈로 사신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 가 내 생명을 이 환란의 시절에 생명 싸개로 싸 주실 완벽한 피난처임을 고백하게 된다. '우리에게 피할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 난 안전함을'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린다.

세상이 어떠한 난 주님과의 동행으로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을 선포한다. 'Oh Lord, you are my hiding place'

성경 정독 후기 중에서 김선화 집사

1. 성령님의 능력 안에 보호받아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는 교회가 되도록.
2. 받은 바 말씀의 은혜를 간직하며 날마다 신앙 성숙을 위해 경주하는 성도가 되도록.
3. 열방의 선교사들이 강건하고 여러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회복과 해결의 역사가 있도록.

여호수아3:17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 갔더라